

# 전남도, 미래비행체 산업 본격 육성 나선다

### 198억 투입 고흥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개소 대우건설과 도심항공교통 협약...클러스터 구축

전남도는 5일 고흥에서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개소식과 함께 고흥군·대우건설과 도심항공교통(UAM) 신사업분야 서비스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미래비행체 산업 육성에 본격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승남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이재학 고흥군의회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흥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연면적 9천246㎡,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드론기업 입주공간 25개 실과 드론 생산 장비실·드론체협장, 기숙사 14개 실 등 주요 시설을 갖췄다. 현재 15개 기관·기업이 입주했으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드론 엔지니어로 육성할 계획이다.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개소식과 함께 추진한 전남도·고흥군·대우건설 간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업무협약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고흥에 도심항공교통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것이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와 수직 이착륙을 기반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다.

정부는 2020년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정부의

장기 미래비전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2020년 6월 수립하고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도심항공교통 기술·산업 육성책을 같은 해 11월 발표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심항공교통 기체 및 항공로 개발·분석 ▲섬지역 교통 특수목적형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 도심항공교통 마트시티 사업 등 미래 항공교통의 개발·실증 공동 추진 등 새로운 서비스모델 발굴을 위한 협력 사항이다.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건설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해 버티포트 분야 설계·시공 및 표준화 구축과 아스트로엑스사 지분투자를 통해 기체를 개발 중이다. 컨코아에어스페이스와 항공로 개설 분야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신기술과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버티포트는 도심형 항공기의 이·착륙 및 항행을 위해 사용되는 구역이다.

김영록 지사는 "미래비행체 산업 생태계 구축



5일 오전 고흥드론센터에서 열린 '고흥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승남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전시된 다양한 드론을 관람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비행체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며 "고흥이 국내 드론·미래비행체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정책방향에 따라 우주발사체 특화산업단지, 민간발사장, 연소시험장 등 핵심

인프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1조6천84억원)해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 도시공원 반려동물 출입 찬반 팽팽

### 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찬성 50.5% vs 반대 46.3%

도시공원 반려동물 출입에 대해 광주시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시민 중 75%가 공원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공원 이용 만족도는 7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5일 광주시의회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도시공원 이용실태 및 공원시설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 허용' 6.1%, '관리수칙 준수 시 조건부 찬성' 44.4% 등 찬성 의견이 50.5%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반려동물 출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46.3%였다.

여성은 57.4%가 출입을 찬성했으며 남성은 52.7%가 반대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근린공원 이용 경험에 대해 75.7%가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은 '운동'이 71.2%로 가장 많았고, '휴식' 20.6%, '만남 장소' 3.9%, '반려동

물 산책' 2.3% 순이었다.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변에 공원이 없거나 이용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0%로 집계됐다.

공원 시설 이용 종합 만족도는 70.3%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0월 17-21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임미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상생 가능한 성숙한 반려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 상하이서 내년 3월까지 전남 전략사업 집중 홍보

### 도 중국사무소, 난샹 인상청 CGV영화관에 '전남관' 운영

전남도 중국사무소가 상하이 자딩구의 난샹 인상청 CGV영화관에서 상영관 중 1곳을 '전남관'으로 명명, 지난 2일 오픈식을 개최하고 2023년 3월까지 전략사업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상하이시정부 외사관공실 부처장 등 관계자와 호남향우회가 함께 참석한 오픈식은 한국 영화(한산: 용의 출현) 감상과 전남 국악 공연, CGV와 협력 협약(MOU) 체결 행사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올해 상하이시와의 우호 교류 26년째를 맞아 인구 2천4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 거주민에게 전남도를 적극 알리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 영화관 활용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영화관 입구 전면 전광판과 전시대, 상영관 진입로를 이용해 전남도의 문화와 주요 관광지 사진 등을 전시하고, '전남관도관'의 모든 좌석에 전남도

이미지를 디자인해 지속적인 노출을 하게 된다.

난샹 인상청의 CGV영화관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젊은 쇼핑객 이용객이 월 5만여명에 달하는 등 많은 영화 관람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홍보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기적으로도 성탄절, 설 명절과 함께 영화 '아바타 2'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2022-2023년 전남도 방문의 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등 일정을 주력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심 중국사무소장은 "지난 11월 푸젠성 사면에서 중국인과 함께하는 '전남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성수기를 활용한 상하이 영화관 관람객 대상 홍보를 적극 추진해 2023년 전남도 전략사업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이랜드복지재단 감사패 수상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5일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경영일 대표이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전경선 부의장은 2008년부터 10년간 하당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전남도의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증축이나 냉·난방기 교체 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운영과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어르신 복지 증진과 기관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경선 부의장은 "작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전남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선인 전경선 의원은 제11대 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12대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재정기자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사

**87**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 Luxury Lifestyle

보편 기본 좋고, 앞으면 행복하다.  
최고의 프리미엄 안마의사를 원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REAL PRO** MAF1 | MA32 | MAK1

**Panasonic**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